

구시로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 조류

구시로와 구시로 주변 지역에는 많은 희귀 동물과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7 종의 새들이 일본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일 년 내내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종도 있으며, 매년 이 지역을 찾아오는 종도 있습니다.

정착종

두루미(학명: *Grus japonensis*), 까막딱따구리(학명: *Dryocopus martius*), 블랙이스톤 물고기잡이 부엉이(학명: *Ketupa blakistoni*)는 구시로의 정착종입니다. 즉, 일 년 내내 이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블랙이스톤 물고기잡이 부엉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부엉이 중 하나입니다. 이 부엉이는 날카로운 시력과 강력한 발톱을 사용해 강과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블랙이스톤 물고기잡이 부엉이는 홋카이도 중부와 동부뿐만 아니라 홋카이도 북쪽에 있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도 발견됩니다. 아이누 문화에서 블랙이스톤 물고기잡이 부엉이는 마을의 신이자 파수꾼으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방문객

참수리(학명: *Haliaeetus pelagicus*)는 겨울 동안, 러시아 동부에서 찾아오는 철새입니다. 해안가에서는 대구를 사냥하는 참수리를 볼 수 있습니다. 흑기러기(학명: *Branta bernicla*)와 큰기러기(학명: *Anser fabalis*)도 봄과 가을에 이 지역을 찾아오는 철새입니다. 흰꼬리수리(학명: *Haliaeetus albicilla*) 중에는 겨울 동안 구시로 지방을 찾아오는 흰꼬리수리와 일 년 내내 이곳에서 머무는 흰꼬리수리가 있습니다.